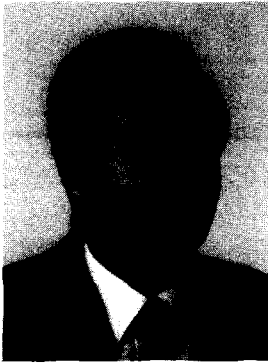


# 시인 趙芝薰의 술이야기



印 權 煥

<高麗大 國文科 教授>

## 目 次

1. 한국의 酒仙 10걸과 조지훈
2. 조지훈의 酒量과 酒歷小史
3. 조지훈의 酒道는 몇 단, 몇 급인가?
4. 酒席에서의 조지훈
5. 그의 酒席 일화 몇가지
6. 조지훈의 酒道 名言八條

## 1. 한국의 酒仙 10걸과 조지훈

우연히 모 주류회사가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펴냈다는 「황금빛 낭만」이란 책을 보다가 “한국의 酒仙 10걸”이란 기사가 눈에 띄었다. 특히 내 관심을 끈 것은 그 10걸 가운데 나의 스승고 趙芝薰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고, 그것도 10걸 중 당당히 3위에 올라 있는 사실이었다.

언제 어떤 단체의 주관하에 어떤 방법으로 10걸의 選定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과와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지는 않아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었으나, 아무튼 짚막하나마 흥미 있는 이 기사에 나타난 결과는 대강 이러했다. 우선 추천기준이 되는 酒仙의 자격은 한국의古今에 있어 두주불사의 주량과 풍류가 특출한 당대의 호걸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그 고상한 품위와 더불어 藥酒終生の 생애를 산 사람에 한하였는데, 여기 해당하는 인물로 추천된 사람은 모두 140명이었다고 한다. 이 중 10걸의 순위에 들어 있는 인물을 순위대로 보면, (1) 황진이, (2) 변영로, (3) 조지훈, (4) 김삿갓, (5) 김시습, (6) 임제, (7) 김동리, (8) 임격정, (9) 대원군으로 되어 있고, (10) 위는 동점자가 몰려 원효, 연산군, 마해송, 심연섭, 박종화 등 5명으로 각각 5명씩의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추천인들이 모두 몇명이었는지 모르나, 장덕순, 김정옥, 김종길, 이어령, 최정호, 김용성, 김용권, 이광훈, 한만년, 이규태, 조경희, 최일남등 현역 교수, 연극인, 소설가, 언론인, 출판인, 문필가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기사는 전하고 있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女流인 황진이가 많은 남자 酒仙들을 물리치고 1위로 올라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고, 아직 생존 인물인 김동리가 끼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0위 이하에 들어 있는 인물들이 누구들인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효까지 들어가는 수준이라면, 이규보, 권필, 정철, 권덕규쯤의 인물들이 왜 10위 권에 들지 못

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 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한국의 주선 10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중에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조지훈이 주선 10걸 중 랭킹 3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진정 조지훈은 酒仙인가?

나는 1956년 대학 1학년 때 그와 師弟의 인연을 맺은 이래, 1968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년 동안 존경하는 스승으로 곁에서 모셔왔다. 특히 「한용운연구」에 몰두할 때와 대학원에서 내 지도 교수로 모셨을 때,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이에 따라 수 없이 술자리도 같이 한 터여서 그의 술에 관한 한 누구 못지 않게 안다고 생각해 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한번 정리하리라는 생각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였다 해도 어려운 사제지간인데다, 그의 술의 절정기가 20대인 1940년대로부터 30대 후반인 1950년대 후반에 걸쳤던 관계로, 이 때의 풍성한 술 이야기는 나로서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회고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터여서 나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극히 제한된 것임을 미리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스승 조지훈이 48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간지도 어언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스승의 영전에 따끈한 술 한잔 올리는 심정으로 한국의 酒仙 조지훈의 술 이야기를 하려니 감회가 새로운 한편, 돌아가신 스승께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다.

## 2. 조지훈의 酒量과 酒歷小史

조지훈은 만48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갔다. 이 길지 않은 생애 동안 그는 무척이나 술을 좋아하였고, 또 자주, 그리고 많이 마셨다. 그가 평생을 병고에 시달린 것도 술과 무관하다 할 수 없고, 그의

단명 또한 술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가 이처럼 온 생애를 詩酒 속에 살다 간 사실은 그의 개인적 생활이나 활동이 잘 나타나 있는 글들, 예를 들면 일기, 기행문, 수필류에 거의 빠짐 없이 술 이야기가 나오고, 그를 알거나 사귄 사람 들이나 그를 따르고 배운 제자들 처놓고 그와의 추억담에서 술 이야기가 빠져가지고는 도무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의 술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다음은 〈酒客이 아니라는 聲明〉이란 그의 글의 일부로서 자신의 酒歷과 酒量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 흥미롭다.

……하기는 술을 찾아 어울려 다닌 것이 20년이라, 일배주 안 마시는 날이 없고 보니, 하루 한잔씩 쳐도 칠천 삼백잔인데 어디 한잔으로 끝나는 술이 있었던가. 풋술로 거드럭거릴 때는 막걸리는 大斗 한말도 무난했고, 약주는 선술로 대포 스물 석잔을 쾌음하여 입상한 기록도 있다.(사실은 내가 2등이요, 나보다 두잔 더 하여 우승한 배우 R는 8.15 전에 요절했다) 게다가 여행을 좋아해서 도처에 酒名을 얻었고, 글까지 술이 들어간 것이 태반이고 보니 他稱으로 酒客이 되는 것도 容或無怪라 할 수는 있다…….

위의 글이 「新太陽」지에 발표된 것이 1956년이니 그의 36세 때다. 그 때 술마시기 시작한 것이 20년이 되었다. 했으니 그의 술은 결국 16세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후 한잔도 안 마신 날이 없다고 했으니 그가 매우 조속하고 지속적인 음주경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풋술이라고는 했지만, 막걸리 대두 한말 또는 약주 스물 석잔을 한 자리에서 쾌음할 정도의 술 실력도 대단한 수준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16세로부터 비롯된 그의 술은 그의 건강이 나빠져 마침내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심지어 22세 때 오대산 月精寺에 들어가 불교강원에서 승려들을 가르치던 사찰

생활 중에도 술은 그의 걸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때를 회상하는 글〈들의美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일년 동안 차보다는 술을 마셨고, 나물만 먹는 창자에 愛酒無量해서 뼈만 남은 몸이 되어 내가 스스로 바위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禪도 茶禪에서 酒禪이 되고 말았다. ……결국 미일전쟁이 터지고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하면서부터는…… 過飲의 나머지 나는 구멍 뚫린 怪石과 같은 추상의 육체를 이끌고 오대산을 떠나고 말았다.

결국 나라를 잃은 슬픔과 폭음이 겹쳐 피를 토하고 졸도한 그는 급전을 받고 내려온 부친에게 이끌려 서울로 오게 되지만, 몸이 회복된 후 조선어학회 시절, 경주에서의 박목월과의 만남과 은거, 해방 후의 문화활동, 고대교수로의 취임, 6.25 당시의 중군활동으로 이어지는 그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그의 술은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였고, 그러는 동안 그의 건강은 아주 나쁜 상태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40세 전후한 이른 나이에 벌써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이른 바 觀酒, 癡酒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지훈은 아주 조숙하였고, 그러기에 짧은 생애임에도 凡人이 70평생이나 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기고 갔다. 마찬가지로 그의 술도 매우 일찍부터 무르익었고, 남들이 평생에 마실 술을 짧은 생애 동안 몇 있게 마시고 남들보다 먼저 훌훌히 이승을 떠난 것이다.

### 3. 조지훈의 酒道는 몇 단, 몇 급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酒仙 10걸”의 추천인들은 조지훈을 10걸에 포함시키면서 그 3위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그가 몇 명의 추천을 받았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아 알 수 없고, 다만 그

중 김용권, 김진찬, 백인호, 이광훈의 추천인만 나타나 있는데 3위에 랭크되기 위하여는 그 이상의 추천인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다면 조지훈이 획득하고 있는 「酒仙」이란 어떤 자리인가? 여기 대하여는 바로 그가 쓴 〈酒道有段〉이란 명문이 유명하거나와, 이에 의하면 酒仙은 酒道 5단으로서 長酒의 경지를 소요하는 주도 三昧에 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지훈 스스로 酒仙이라 자처한 바는 없다. 그러면 조지훈의 酒道는 과연 몇 단 몇 급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잠깐 그의 酒道有段論을 일별하기로 하자.

그는 음주에 모두 18의 계단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다시 1~9급, 1~9단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1급(學酒酒卒)에서부터 飯酒, 睡酒, 色酒, 商酒, 隱酒, 憫酒, 畏酒를 거쳐 9급(不酒)에 이르는 9단계는 술의 진미를 모르던가, 술의 목적을 왜곡하는 경우여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1급을 지나야 술의 진미를 깨달은 경지에 이르는데 여기서부터 有段者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단에서부터 9단까지의 차례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단(酒徒) 술의 취미를 맛보는 사람(愛酒)
- 2단(酒客) 술의 진미에 반한 사람(嗜酒)
- 3단(酒豪) 술의 진경을 체득한 사람(耽酒)
- 4단(酒狂) 주도를 수련하는 사람(暴酒)
- 5단(酒仙) 주도 삼매에 든 사람(長酒)
- 6단(酒賢) 술과 인정을 아끼는 사람(惜酒)
- 7단(酒聖) 마시던 안 마시던 술과 더불어 유유 자적하는 사람(樂酒)
- 8단(酒宗) 술을 보고 즐거워 할뿐 이미 마실 수 없는 사람(觀酒)
- 9단(名人) 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사람(廢酒, 涅槃酒)

이 중 조지훈이 올라 있는 酒仙은 5단이니 꼭 그 중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가 스스로 酒仙이라 자처한 바는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1급인 酒卒로서 學酒의 경지에 있음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말은 자신의 술의 段과 경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내 비록 學酒의 小卒이지만 아마추어 酒院의 師範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건만 20년 정진에 겨우 初段으로 이미 몸은 觀酒의 경지에 있으니 뻘 인생사 한도 많음이어……

(酒道有段, 新太陽, 1956)

즉 酒歷 20년의 연륜에 酒道는 1단(酒徒)이나 건강이 나빠서 몸은 이미 觀酒(8단, 酒宗으로서 술을 보고 즐거워 할뿐 마실 수 없는 사람)의 경지에 이른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쓸 때의 나이가 36세였으니 30대 중반에 이미 그의 건강이 술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필자가 알기로 그는 40대 초까지는 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조지훈의 酒道가 몇 단이냐 하는 문제 보다는 그 술의 멋과 풍류와 호방함인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오대산 월정사 시절이래 즐겨 마신 三道酒다.

三道酒란 어떤 술인가. 그가 마신 삼도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번째 三道酒.

……나는 항상 三道酒란 술을 마신다.

이 술은 사람 사는 마을에는 없는 곳이 없다. 무엇으로 만든 술이고 하니 국화주도 매실주도 죽엽주도 아무 것도 아니다. 역시 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이다. 그런데 三道酒란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仲尼先生(孔子=필자)이 애써 가꾸신 쌀과 老聃翁(老子)이 손수 만든 누룩으로 悉達多上人(석가모니)이 길러오신 샘물로 빚은 술인 연고다.

결결한 막걸리지만 청신한 맛이 천하일품이다. 나는 半 四十에 三道酒를 배운다. 몇 해나 취해야

나를 볼른지 알 수 없다.

(멋說·三道酒, 新太陽 1958)

다음 두번째 三道酒.

……오늘 달 아래 술을 거른다. 내 손수 따 온 머루와 술잎과 當歸로 빚은 술이다. 내 앓은 키와 가지런한 술 독이 아랫목에 앉아 있고, 술지게미 말라붙은 체도 옷목에 걸려 있고, 달 잠긴 샘물도 童僧이 길어왔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주물러 걸러 내니 방안에 이미 향기가 가득하다…….

검은 눈동자가 슬며시 옆으로 돌아간다. 어디 보자 나도 한 사발. 그만하면 훌륭하군.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머루 맛에서 老子가 웃는다.

술잎 맛에서 佛陀가 웃는다.

當歸 맛에서 孔子가 웃는다.

……

三道酒를 마시고 道를 그만 잊고 만다.

(同上)

결국 첫번째 三道酒란 다름 아닌 그 혼한 막걸리요. 두번째 三道酒 역시 머루 술잎 당귀를 재료로 빚은 막걸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우리의 토속주 막걸리의 양조에 孔子, 老子, 석가모니를 동원하고, 그 취흥의 진미에다 유교, 불교, 도교 三敎의 진수를 결합시켜 三道酒라 명명하고, 이 道酒의 흥취 속에 자적하는 조지훈의 멋과 풍류와 호방함이 놀라움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지에서 노닐었던 그의 술에 대하여 몇 단이나 몇 급이냐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 4. 酒席에서의 조지훈

술 마시는 이들의 주량이나 기호와 취향, 술자리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술버릇이나 주정은 사람들

의 생김만큼이나 천차만별 각인각색이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점들이 그 사람의 주객으로서의 품위를 평가하는 주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지훈은 이런 점에서도 남다른 면을 지니고 있었다.

즉 그는 일관된 음주습관과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술이 주는 장점과 德을 최대한 터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 자리에서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고담준론과 호방하고 호쾌한 웃음, 음담까지 곁들이는 거침없는 해학으로 항상 좌중을 매료하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엄격하고 법도 있는 大人의 자세를 잃는 일이 없었다.

이제 이를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酒道の 엄격한 조건〉

앞에서 보았드시 조지훈은 18개의 級과 段으로 酒道の 높낮이를 나누어 각각 명명한 바 있거니와 이처럼 급수와 단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 ① 술을 마신 연륜이 얼마나 되는가
- ②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 ③ 술을 어떤 기회에 마시는가
- ④ 술을 마시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
- ⑤ 술 버릇은 어떤가

여기서 그의 酒道에 대한 엄격함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5가지 조건은 자신이 실제로 실천해온 음주의 법도이기도 했다. 즉 음주의 경력, 항상 어울리는 술친구, 음주의 기회와 동기, 술 자리에서의 자세와 버릇을 보면 그 인간의 품격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그는 이 점을 항상 유의하여 조금도 소홀히 함이 없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은 물론, 막역한 술 친구들까

지도 술과 술자리에 관한 한, 그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 자기 스스로도 “아마추어 酒院의 師範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음도 실로 허언은 아니었다. 그만큼 그는 엄격하고 법도 있게 酒道를 터득하고 지키고 그리고 주석을 리드하는 인물이었다.

#### 〈폭주·쾌음·흥취의 영원한 酒卒〉

조지훈의 음주 스타일은 거침없이 들이키는 暴酒요 快飲이었다. 한 두잔 마시고 사양하거나 술 한 잔을 놓고 여러번 흘쩍대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 막걸리건 소주건 술잔 가득히 받아 한숨에 잔을 비웠고, 어떤 경우고 잔을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주석에서의 그는 항상 쾌활 명랑하였고, 취흥이 고조되면 도도한 언변과 거침없는 해학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데 그를 당할 자 없었다. 그는 항상 술 그 자체 보다는 술 마신 흥취를 좋아 한다고 했다. 그러기에 그는 화풀이로 술 마시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취중에 화 내는 일도 없었으며, 주정하고 싸우는 일은 더욱 없었다. 그리고 술이 강해서 그런지 술 마시고 정신을 잃거나 횡설수설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난 20년 동안 萬餘번의 술 좌석에서 일어난 일을, 잊어버린 것이 태무할 정도로 불행하고 속스러운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주객이 아니라는 성명, 신태양, 1956〉

라고 스스로 실토할 정도로 그는 술 취해서도 정신이 명료했고, 술 깬 후에도 주석에서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보면 그는 음주의 大家로서 당당히 자처할 수 있었으려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영원한 酒卒”이며 “酒客이 아니라”는 성명을 글로 써서 내놓기까지 하였다. 그가 말한 그 이유는 두가지였다.

첫째,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시고 싶어 못 견디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술 맛은 알았으되 술이 아직 心身에 젖어들지 못한 상태니 진정한 주객이 못 된다는 것이었다.

둘째, 그는 혼자서 술 마시는 일이 없다고 했다. 좋은 안주라도 있으면 부인에게라도 권하면서 마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집에 있는 술이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주객이 못 되는 이유로 충분하고, 그러기에 자신은 영원한 酒卒일뿐이라고 했다.

이와같은 그의 음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술을 시작하였고, 또 누구보다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셔온 사람임은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그는 學酒 20년에 체득한 酒德이라 하여 다음 두가지를 들고, 비록 酒卒일망정 하나의 신념으로 고맙게 여기고 있노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 첫째는 그의 타고난 신경질에 편협하고 꼼꼼하던 성격이 술로 인하여 활연 호방해지면서 낭만적인 후천적 성격으로까지 변모되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감정이 흥분되었을 때, 즉 화풀이등 잠재감정을 술로써 풀려는 것은 술의 邪道이며, 술은 오로지 無聊와 倦怠의 극복을 위해 마시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 스스로 주객이 아니라 영원한 酒卒이라 하여 내세우는 두가지 이유와, 음주 20년에 체득하였다는 두가지의 酒德論에 조지훈의 주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고, 오히려 여기에 진정한 그의 酒仙으로서의 진면목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長坐不起, 徹夜痛飲〉

앞에서 조지훈을 한국의 酒仙 3위로 선정한 추천인들은 그의 음주 특징으로 “신출귀몰의 주선” “행동형 주걸” “심야 酒朋 방문” “철야통음” “새

벽귀가” 등을 들었다. 필자가 알기로도 대체로 크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은 아니다.

그는 술을 즐겼고 사양하는 일이 없었기에 술자리에 한번 앉으면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러나 당시의 통행금지가 있던 때라 술집에서의 술자리는 밤 12시 이전에 끝내야 했다. 일어나 가기는 해야 하나 술은 아직 부족하고……이렇게 되어 촉박한 시간에 귀가하다 보니 파출소를 들르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었고, 아쉬운 酒氣를 달래기 위해서는 밤중이라도 酒朋의 대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 철야통음 새벽귀가가 다 반사였음은 당연지사였다.

그의 집은 성북동에 있었는데, 보통 시내에서 마시다 통금에 쫓겨 버스나 전차를 타고 삼선교에 내리면 집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서울대의 송옥교수(시인, 영문학)와 최문환교수(총장 역임, 경제학)가 살고 있었고, 이 두분은 모두 조지훈과 친한 사이로 자주 어울리는 술친 구이기도 했다. 그러니 통행금지도 크게 구애 받지 않은 한 동네인지라, 얼근히 취하여 귀가하는 그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고 물을 것도 없이 조지훈이었고, 청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主客간에는 술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철야통음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일은 아주 자주 있었다고 한다.……(송옥교수의 부인 인양희여사는 나의 집안 누님이었는데, 내가 조지훈교수의 제자임을 아는 누님은 “조지훈교수가 술만 취하면 밤 중에 대문을 두드리고, 밤새 술을 마시고 가서 아주 지겹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술들을 좋아한 탓이었는지 이 세분은 모두들 오래 전에 고인이 되었다. 진정 저승이란 곳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호쾌한 철야통음의 술자리는 거기서도 지속되고 있으리라)……

아무튼 이러한 조지훈이었던지라 1960년대 초 나의 대학원 학생시절, 술 마시다 통금에 쫓긴 그가 나의 집에 찾아 와 밤새 마시고 간, 나로서는

매우 영광스런 일도 있었다.(물론 함께 마시다 온 내 친구들의 인도였던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말하겠다.)

이처럼 長坐不起의 조지훈의 음주벽은 철야통음은 물론, 통금위반, 심야방문, 새벽귀가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그와 술자리를 같이 한 이들로써 이와 관련된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은 이도 드물다. 그리고 그의 이와같은 점은 무엇보다도 술에 강하여 웬만큼 마셔도 정신을 잃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흥취가 고조되어 그의 하해같은 언변과 농도 짙은 해학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따라 좌중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중단되는 것이 모두가 아쉬워 어떻게든 이를 지속 연장하려는 시도가 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와 술자리를 같이 한 어느 누구도 조금도 언짢거나 기분 상한 기억이 전무하다는 한결 같은 이야기들이고 보면, 그의 높은 酒道의 품격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와의 술자리가 마냥 그립기만 하다.

### 〈高談과 해학〉

조지훈이 논리적이고 차원 높은 高談峻論과 호쾌하고 거침 없는 諧謔으로 좌중을 매료시킨다 함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점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교양 그리고 폭넓은 독서와 비상한 기억력에 바탕을 두고, 논리적인 언변과 기발한 표현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는 그만의 독보적 경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고담준론만 하더라도 그가 詩人이며, 學者임과 동시에 유명한 論客으로 불려지는 인사였던만큼 정치 경제, 종교 예술, 사회 인생등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또 이 모든 부면에 대하여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론을 두루 갖추고 있는 터였고, 언변 또한 논리정연하여

듣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족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모인 어느 좌석의 무슨 화제라 하더라도 그는 막힘이 없었고, 그와의 논쟁에서 그를 당할 자도 없었다. 바로 그의 이런 면 때문에 해방 후 좌익문인들과의 사상논쟁에 있어 그는 민족진영의 이론적 선봉장이 될 수 있었고, 만년에 韓國學의 기초를 정립한 불후의 업적을 남긴 學者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28세의 젊은 나이에 高大 교수로 부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그가 어느 사석에서 좌경 지식인과 벌린 사상논쟁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그 자리에서 조지훈의 해박한 철학 및 사회과학의 지식과, 예리하고 논리적인 이론 전개를 듣고 감탄한 당시 고대 李鍾雨학장(후에 총장 역임)이 “저게 누구냐”고 했고, “시 쓰는 조지훈이라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처럼 아는 것이 많고, 저렇게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할 수 있을까”하고 놀라면서 신임하게 된 것이 그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趙芝薰論, 金宗吉, 「趙芝薰研究」 1978. p436) 이는 그의 고담준론의 격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거니와, 그의 이같은 점은 술자리에서 흥취가 나면 더욱 고조되는 것이 상례였던 것이다.

술좌석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해학(유머, 익살)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해학은 폭소를 유발하여 좌석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어느 술좌석이고 항상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또한 있게 마련인바, 조지훈은 이 부면에서도 유감없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실상 재미 있는 이야기로 남을 웃게 한다는 것이 노상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우선 많이 알아야 하고, 기억력이 좋아야 하고, 구변도 좋아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동서고금의 야사, 일화, 야담 등 笑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청된다. 조지훈은 이 점에 있어 博覽強記한 인물이었다. 또 해학에 능통하기 위하여는 거침없는 음담패설은 물론 육담육설도 서슴치 않는 자재로운 과감성과 때로 자기

마저 골계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조지훈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해학적으로 희화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어느 자리에선가 이름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 때 그가 “이름이야 내 이름이 최고지, 조지훈, 조지 훈훈하다. 조지 훈훈하면 최고 아냐? 하하하……”하고는 “조지 훈훈하다.”를 따라하는 제자들과 함께 박장대소하는 그였다. 또 내가 직접 들은 기억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경우도 있었다. 1950년대 말인가, 당시 趙眞大라는 문인(극작가로 기억됨)이 있었는데, 한번은 그의 이름을 들면서 “조진대라, 이름 한번 좋지, 조진대, 조진대……하하하” 파안대소하는 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번째는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였다. 역시 육담 섞인 해학담이 오고가던 중 어느 익살맞은 제자가 기발한 제안을 하였다. 즉 조지훈선생은 워낙 아는 것이 많은 분이라 호를 하나 새로 짓되 “알 지(知)” “많을 다(多)”의 두 글자를 붙여 “知多”先生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인즉 姓까지 붙여 趙知多가 되면 “조지다”되어 욕이 되는 이름인지라 한편은 웃으면서도 한편 좌송스런 마음조차 없지 않았던 것이 좌중의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듣자 “조지다, 조지다 거 참 좋은 이름이군, 자! 한 잔!”하는 그였다. 그 후 제자들이 술좌석에서 “조지다선생”이라 불러도 그는 웃음으로 받아 주었다. 그는 자기 호칭에 성기 이름이 포함되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남녀가 서로 상대방의 성기를 빨아대는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는 69라 한다지만,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전복 따고 통소 불고”라고 표현했다는 말도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한편, 그의 술 자리에서의 해학의 압권은 傳來笑譚이었다. 많이도 알고 있었고, 들을 적마다 새로

운 이야기여서 그와의 술 자리가 길어지는 것은 그때문이기도 했다. 「古今笑叢」류의 문헌 소담도 있었지만, 처음 듣는 口傳의 이야기가 많아 그는 그 방면의 보고이기도 했다.

“호랑이 잡는 세가지 방법”(捕虎三法) 중,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 방법은 호랑이의 고상한 기질, 즉 영웅심이 강하고 기개가 높으며, 그래서 지조와 자존심이 높은 정신을 심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호랑이들은 늙고 힘이 없으며 굶주린 놈이 해당된다고 한다. 호랑이 체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을 수는 없는 터요, 그렇다고 재빠른 사슴이나 노루를 잡아먹자니 쫓을 힘이 없고, 다람쥐나 생쥐같은 작은 동물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백수의 왕이요. 산중의 호걸 체면에 그런 미물들을 노릴 수도 없는 터, 그래서 이 늙은 호랑이는 못 먹은 채 잠만 자다가 점차 힘이 빠져간다는 것이다. 이 때 따뜻한 잔디밭에서 잠자는 늙고 굶주린 호랑이에게 피 묻은 여자의 월경대를 하나 구해 가지고 가서 슬그머니 코 앞에 놓아두고 얼른 숨는 다는 것이다. 이윽고 피비린내를 맡은 호랑이는 잠결에도 식욕이 동하여 벌떡 잠이 깨어 월경대를 금방 삼킬듯 물어 뜯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비린내는 나나 씹히지도 않고 이상하여 내려놓고 생각한다고 한다. “아니 이게 뭘까? 고기도 아니고, 피가 묻어 있는 형겍이 아닌가?” 아하! 내 일찌기 들으니 인간 여자의 下門에서 매달 이런 것이 나온다더니 바로 그것이로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먹으려 했더니……내 아무리 굶주렸기로서니 산중 영웅의 지조와 자존심으로 어찌 이같은 치욕스런 행위를 할 수 있던 말인가.”하고 한숨을 크게 한번 쉰 호랑이는 그만 분연히 자살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 때 숨어 있던 사람은 죽은 호랑이를 지고 가 가족을 베끼면 된다고 한다.



## 5. 그의 酒席 일화 몇가지

그의 술 자리에서의 일화는 많다. 짧은 생애임에도 스스로 萬餘번의 주석을 경험하였다고 실토히고 있는 터이고 보면, 여기 따르는 일화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그것들을 모아본 일이 없고, 또 이 글에서는 이미 제한 분량이 차고 말았다. 따라서 그의 술 이야기 중 일화 부분의 정리는 더 많은 수집이 이루어진 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두드러진 것 몇가지만 골라 보기로 한다.

### 〈대구 병영의 군인 따귀 사건〉

그가 종군작가단의 일원으로 「창공구락부」에 속해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가 병영 안에 막사를 얻어 동료들과 거거하고 있던 어느 날,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를 잊고자 거기 머물던 종군문인들은 술자리를 벌리고 거나하게 취하였고, 이어 고성방가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때 밖에 있던 현역 군인 하나가 총을 들고 들어와 벽을 향해 총을 쏘아대며 “지금 이 어느 때인줄 알고 술에 취하여 이 짓들이냐!”고 서술이 퍼렇게 소리쳤다. 그러자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엎드리던가 파랗게 질린채 말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 그러나 이 때 조지훈만은 술 마시던 자세 그대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놈 여기가 어딘줄 알고 함부로 총질이나? 총은 그런 때 쓰는 게 아니야! 우린 총보다 더 뜨겁고 힘 있는 애국으로 모두 여기 모여 있다. 쏠테면 씨라 이놈!”

이렇게 외치는 그의 벽력같은 호령에 총 쏘는 군인도 기가 꺾여 멈칫하는 사이, 느닷없이 달려든 조지훈은 군인의 따귀를 호되게 후려쳤다. 너무도 고압적이고 당당한 그의 기세에 위압 당한 군인은 그

만 총을 내려놓고 사과하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시인 朴木月 이 후일 들려준 이야기다.

### 〈술 버리고 뺨 맞은 제자〉

여러 제자들과의 술좌석에서 었다. 술은 역시 막걸리였고, 따라놓은 막걸리 잔이 각 사람들 앞에 놓여 있던 중, 바로 조지훈 옆에 앉아 있던 제자가 잘못하여 피우던 담배 재를 술잔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당연히 못 마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잔의 술을 쏟아버렸다. 그와 동시에 전광석화같이 조지훈의 손이 그 친구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소리쳤다.

“이 놈! 술을 버리다니! 나쁜 놈!”

“담배 재가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아까운 술을 버리나? 술을 버리는 놈은 주도를 모르는 놈야!”

술지에 뺨을 맞은 그 친구는 아프기도 했고, 무안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스승에게 대들수도 없고, ……한참 뒤 그 친구는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조지훈이 판전보는 사이 그의 술잔에다 기다란 담배재를 털어 넣었다. 그리고는 어찌하나 보았다. 그런데 조지훈은 재 빠진 술잔을 들더니 후후 불어서 재를 한 쪽으로 몬 다음, 술은 남김없이 모두 마셔버리는 것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조지훈은 술좌석의 무례를 참지 못하는 성미였고, 또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도 확립에 엄격한 터여서, 이에 어긋나는 경우는 여지없이 뺨따귀를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모르지만, 후배 시인 金冠植 이 또한 술을 좋아하여 주도 4단인 酒狂으로 폭주의 경지에 이른 이였는데, 자주 주석에서 실례를 범하여 조지훈으로부터 수차 따귀를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조지훈으로부터 따귀를 맞은 김관식은 금방 주정을 그치고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역시 유단자 풍모가 역연하다고 보는

이들이 칭찬했었다는 후문이다.

### 〈삼청동의 철야통음〉

1960년대 초 나의 대학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때 三清洞 형님댁의 문간방에 기거하고 있었다. 어느날 밤 12시 통행금지 시간이 막 지난 때라 나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는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비비고 나가니 조지훈과 함께 나의 친구 세명(박찬세, 박노준, 윤장근)이 들이닥친 것이다. 친구들의 심야방문이야 흔히 있는 일이어서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내 지도교수인 조지훈선생이, 그것도 이 밤중에……당황하고 얼떨떨하고……정신없이 방을 치우고 이미 잠든 형님 내외를 깨우고 술상을 준비하고, 문 닫은 동네 가게를 두드리 술을 사오고……이야긴즉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통금지시간이 되자, 철야통음을 목표로 나의 집을 찾은 것이었고, 박노준군이 앞장을 섰다는 이야기였다. 아무튼 나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으로서 밤중에 찾아오신 지도교수님을 내 방에 함께 모시고 밤새 술을 마신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어떻게 마시고 취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다. 그날도 조지훈은 전작이 있는 터였지만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때 삼청동에 살던 知友 서예가 時菴 裴吉基선생을 오시게 하여 두 분이 밤새 정담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히려 자다가 일어나 얼떨결에 마신 술에 취한 내가 더 취하여 새벽 일찍 돌아가시는 스승의 바램을 못해드린 것이 지금껏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 〈半白 노인과의 동침〉

그의 19세경의 이야기였다고 한다. 종로 부근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 술집을 순례하며 마시다가 밤이 깊어 대취한 채 모두들 헤어지게 되었는데, 조지훈은 취기가 심해 집에 갈 생각을 포기하고, 전에도 밤 늦으면 가끔 자곤 하던 관철동에 있

는 친구집으로 비틀 비틀 향하였다. 무조건 대문을 흔들고 들어가 친구가 오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보니 이상하였다. 방 안이 친구의 방이 아니었고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은 낮 모르는 반백의 노인이었다. 다른 집이었다. 정신이 번쩍 났다. 슬그머니 일어나 살금살금 뺑소니를 치려는데, 어느새 깨었는지 그 노인이 옷을 꼭 붙잡고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젊은 이, 해장이나 하고 가야 피차 인사가 되지 않소?”

하도 놀라 어이없이 주저앉은 그를 두고 뺑하니 나간 노인은 조금 있다가 따끈하게 덤힌 해장술과 해장국을 사들고 와서 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인의 이야긴즉, 그 노인 역시 대단한 애주가로 조지훈 또래의 아들을 잃은 터로, 엿저녁 웬 낮선 젊은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무조건 쓰러져 자기에게 이해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술 좋아하는 老少 두 세대는 해장술로 얼큰한채 담론이 풍발했다고 한다. 〈술은人情이라〉 이것은 이상의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조지훈이 붙인 제목이다.

## 6. 조지훈의 酒道名言 八條

조지훈의 酒道의 名言이라 하여 따로 만들어 글로 썼거나 말로 남긴 것은 없다. 따라서 여기서 그의 주도 명언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쓴 술관계의 글 가운데서, 그의 평소의 酒道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필자가 발췌하였거나, 그 뜻을 살려 문장화한 것이다.

- ① 목적이 있어서 마시는 술은 下之下品이요 俗酒다.
- ② 道酒가 따로 없다. 술의 진미를 완미하는 심경이면 어느 술이건 다 道酒다.
- ③ 감정이 흥분되었을 때 화풀이로 술을 마시는

것은 邪道다.

- ④ 되잖게 취하는 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차라리 술을 썬다는 것만도 못 하다.
- ⑤ 술을 좋아하기보다 술 마신 흥취를 좋아하라.
- ⑥ 술은 언제나 無聊와 倦怠의 극복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상책이다.
- ⑦ 주정을 보고 그 인품을 알 수 있다. 주정도 교양이다.

⑧ 인생의 길에는 취해서 가는 길이 옳고 바를 수도 있다.

이상 8조의 名言은 실로 그의 음주 신조였고, 그가 일관되게 실천한 주도의 강령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그 하나 하나 하나에 그의 취향과 교양과 인품이 배어 있어 주석에서의 그의 언행을 방불하게 한다.

천하의 주당들이여! 깊이 음미하고 명심할진저!

Education is the ability to listen to almost anything without losing your temper or your self-confidence.

교육이란 화를 내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의 모든 것에 귀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다.

—Robert Frost—